

공원문화의 현실과 지평: 서구와 한국의 공원이용 변천과 비교를 중심으로

조경진*

〈目 次〉

- | | |
|------------------------|---------------------------|
| I. 시작하며: 공원설계와 공원문화 | IV. 서구 공원문화의 변천 |
| II. 우리나라의 공원문화, 상황과 조건 | V. 공원문화, 갈등과 극복: 서울숲을 사례로 |
| III. 공원문화, 비교와 차이 | VI. 마치며: 우리의 공원문화, 이슈와 과제 |

I. 시작하며: 공원설계와 공원문화

최근 많은 도시들이 앞 다투어 공원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원과 녹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2006년 서울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를 보면, 환경 분야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 분야 중 공원과 녹지 분야가 자동차 매연에 이어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드러났다.¹⁾ 이 결과가 보여주듯이 서울시민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것은 공원과 녹지의 양적 확충과 질적인 관리 개선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공원들이 조성되고 계획되고 있다. 기성 도시에서는 공장, 철도, 쓰레기 매립지, 군사기지 등으로 이용되었던 장소를 공원으로 개조하는 일들이 진행 중이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부산시도 하야리아 미군기지의 공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다.²⁾ 한편 최근 신도시를 계획할 때는 현상공모를 통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 1) 한겨레 신문 2007년 5월 22일 '서울시 시민만족도 환경 최하위'라는 기사에서 '2006년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에서 환경 부문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가장 낮은 반면, 소방·재난 부문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소방·재난 부문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74.6점을 주었고, 환경 분야에는 가장 낮은 55.9점을 주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공원과 녹지 부분에서 47.5점, 자동차 매연 부분에서 가장 낮은 39.9점으로 주어서 대기에 이어 공원과 녹지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확인할 수 있다.

여 질 높은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입찰공모를 통해 판박이식의 공원설계가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공원설계의 새로운 시도는 진일보된 측면이 있다. 최근에 성남판교지구 도시기반시설 공원설계와 파주운정지구 공원설계가 현상공모로 이루어졌고, 김포 신도시 공원설계 현상공모도 예정되어 있다.³⁾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중앙녹지공간에 2백만 평 정도의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가 계획되고 있다. 바야흐로 공원의 시대라고 할 만큼 한국의 공원설계는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되고 있는 공원설계안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새로운 감각의 공간을 창출하고자하는 노력은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담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많은 경우 조경설계가들은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공간 연출에 치중하다 보니, 그 공간을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즐기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배려에는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다.⁴⁾ 공원의 외형에 대한 관심에 더불어 공원문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피에르 상소(Pierre Sansot)는 공원에 관한 책들이 늘 공원의 꽃과 나무를 다루면서 공원설계의 고객인 사람에 대해서는 정작 소홀히 다루는 사실이 늘 자신을 불편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책 속의 파리나 르와르 계곡의 공원들은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과는 유리되어 있어 체감할 수 없는 비현실적 이미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원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디자인된 것이다(Sansot, 2002: 6). 그가 지적한 대로 공원문화에 대한 논의가 빈곤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공원문화란 동시대의 사회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원 이용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⁵⁾(서효정, 1996: 26). 이러한 측면에서

2)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일은 중앙정부인 국무조정실 용산공원 건립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2006년 8월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이 있었고, 2005년과 2007년 공원화 관련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초적인 작업 및 의견수렴 단계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하야리야 미군기지 이전부지는 현재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2007년 상반기에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최초로 신도시공원설계가 설계공모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성남 판교 택지개발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 및 제9호 근린공원 설계공모와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 조경설계안 설계공모가 그것이다. 설계공모 방식으로 공원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천편일률적인 공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앞에서 언급한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 및 제9호 근린공원' 설계공모의 경우 현상공모 수상작(최우수작 1점, 우수작 1점, 장려상 2점)을 검토해보면 공원설계에 전략이나 프로그램에서 공원이용방식을 상정하거나 제시하고 있다, 4개의 작품의 경우 공원이용과 공원형태의 관계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엿볼 수 있다. 공원 형태의 디자인에 치중한 안, 공원의 새로운 외형에 관습적인 공원이용을 부가한 안, 새로운 유형의 공원이용을 염두에 두고 공원의 디테일한 디자인을 시도한 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우수작이 다른 작품에 비해 공원이용과 공원디자인의 관계를 고민한 흔적이 많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원의 외형적인 디자인이 우선시되고 이 공간에 만들어내는 일상적인 공원문화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설계안은 『환경과 조경』 2007년 4월호 '판교 조경설계 현상공모' 특집 기사를 참조할 것.

5) 공원이용이라는 의미에서 공원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Galen Granz(1989)는 미국 공원의 발달과정은 공원이용(park usage) 관점에서 기술하였고, Roy Rosenzweig와 Elizabeth Blackmar

본다면 공원 문화의 핵심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있다.

공원문화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탐구를 통하여 공원 설계를 위한 실천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기획 의도이다. 역사적으로 공원은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가를 추적하면서 현재의 다양한 공원 이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해진 유형의 이용방식을 상정하면서 통제의 경계를 설정하여 왔다. 또한 공원에서의 여러 다른 이용 그룹간의 갈등도 항상 존재하여 왔다. 공원은 근본적으로 자유의 공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선택과 배제가 숨겨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서구와 한국의 공원이용의 변화를 살펴보고 비교함으로써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공원을 넘어서, 생활문화로서 공원문화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공원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의 이해가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공원설계의 기반이 된다. 공원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공원설계를 찾아가는 실타래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II. 우리나라의 공원문화, 상황과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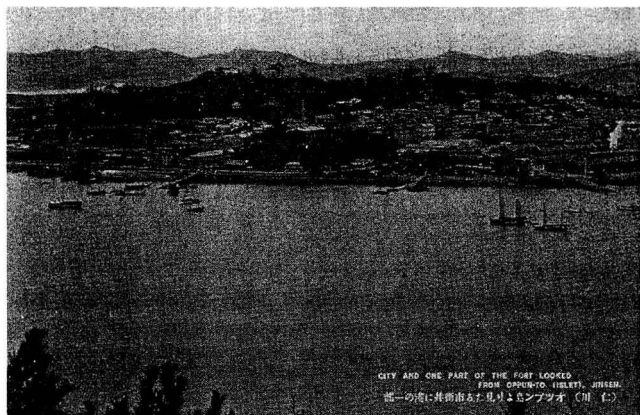
우리의 공원문화는 일천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공원의 역사는 1세기를 갓 지났을 뿐이다. 1880년대 초반 일본, 미국, 유럽을 여행한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공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에 공원은 우리 도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서구 근대도시의 신문명이자 신문화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공원의 효용을 역설했다. “공원을 만드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빈자든지 부자든지 저마다 영위하는 사업에 분주하여 정신이 피곤하고 기력이 나른할 때에라도 공원 안에 들어와 한가롭게 거닐면서 화초의 향내를 맡거나 푸른 나무 그늘을 깔고 앉아 청명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 가슴 속이 깨끗해지고 심신이 상쾌해져 고달픈 흔적이 다 씻겨 없어진다. 이런 곳이 있음으로써 우리 위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대중의 즐거움에 이바지하는 일이 실상은 부유한 기상을 빚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자가 부자를 질투하는 나쁜 마음도 없어지게 된다.”(유길준, 2004: 197-198) 유길준은 19세기 서구 도시 공원이 지향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정서 순화, 공중 위생, 계층 혼합 등은 유럽의 공원에서부터 미국의 공원까지 이어져 내려온 공원의 철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공원을 합리적인 근대적 사고와 생활 양식의 산물로 간주하였다. 각국 대도시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런던 리젠트파크 등의 공원문화에 대한 스케치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다소 논란이 있으나 한국 최초의 공원은 1888년에 조성된 만국공원이다. 1883년 제물포 개항

(1992)는 센트럴파크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성시기에서부터 1990년대까지 상세히 추적하여 공원이용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국내의 경우 본격적으로 공원문화를 다룬 연구는 찾기 힘들다. 다만 강신용(1995)의 한국공원사 연구에서 공원문화에 관한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다.

이후 인천의 외국인 거류지에 만들어진 이 공원은 현재 자유공원이라 불린다. 만국공원은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는 문화의 기항지(cultural port)였다(『문화의 창』 총서 편집위원회, 2006: 16-57). 존 스톤 별장, 세창양행 사택, 인천관측소, 오래당 저택, 제물포 구락부 등 이국적인 근대건축물이 들어서 있었던 만국공원은 일종의 건축 테마파크의 성격을 지닌 곳이었다. 만국공원을 엄격한 의미에서 최초의 한국 도시공원이라 간주하는 데에는 난점이 존재한다. 공원 내의 건축물들은 개인 소유이었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의 공공건축물이 아니었고, 배타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국공원은 인천 사람들의 생활공간이자 외지인들이 찾는 관광명소이었으며 도시의 상징공간이었다.⁶⁾ 만국공원이 위치한 응봉산 북쪽의 분지는 웃터골이라 불리었고 초중교생의 운동회 등이 펼쳐지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크고 작은 섬들을 전망할 수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였다.

서울 최초의 공원은 1896년에서 1897년 걸쳐 애국지사들과 정부가 만든 ‘독립공원’이다. 이 공원은 서대문 현저동 독립문 근처에 조성되었다가 사라져 현재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선각자들은 외세의 간섭이 득세한 상황에서 나라의 자주독립을 상징하는 작업으로서 서재필이 주도하여 독립문과 독립공원을 세웠다. 1897년 독립문이 건립되는 시기에는 공원이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짐작된다. 오랜 기간을 아니었지만 독립공원은 실제로는 실용적인 용도로 활용되었다고 전해진다. 과수, 수목 및 관목을 재배하기 위한 장소,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위한 옥외 운동장, 주말에 개최되는 연설회 장소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강신용, 1995: 43-45, 황기원, 2001: 387-391).



〈그림 1〉 만국공원

(자료: 문화의 창 총서 편집위원회(2006) 『만국공원의 기억』, p. 70)

6) 만국공원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다양한 이미지는 다음을 참고하라. 『문화의 창』 총서 편집위원회 엮음 (2006), 『만국공원의 기억』, 인천문화재단.

1897년 조성된 파고다공원(현 탑골공원)은 개화 초기의 공원으로 초기의 모습이 남아있는 공원 중의 하나이다. 이 공원은 원각사 절터에 있었던 주택을 철거하고 조성되었다. 개원 초기에는 왕실이 소유하고 있었기에 일반 시민이 항시 이용할 수는 없었고 일요일에만 개방되었다. 1910년 공원의 관리권이 경성부에서 총독부로 이관되었고, 1913년에 이르러 일반 시민들이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원 개원 초기에는 주로 산책하고 휴식을 취하는 이용행태가 주를 이루었으리라 추측된다. 특이한 점은 공원에서 군악대 연주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강신용, 1995: 45-55, 황기원, 2001: 391-393). 서구의 공원 프로그램에서는 음악 공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외국의 공원문화의 영향이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파고다공원은 일본인들이 점유하던 남산공원과는 다르게 한국인의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1919년 3·1만세운동이 시작된 민족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이는 공원이 휴식 공간이외에도 도시 내의 공공 공간으로서 도시의 상징이 되며 의사소통의 중심 공간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제하의 공원정책은 장소의 고유한 성격을 변질시키거나 장소의 이용방식을 변화시켰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정치문화 지배전략으로 활용된 공원조성은 대중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우리 고유의 성스러운 공간의 의미를 변모시켰고, 일본의 신사이데올로기를 투영한 공간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산공원으로 일본인은 남산 일대에 신사를 설립하고 조선신궁을 조성하는 등 우리 고유의 숲을 왜색 공간화 하였다. 또한 사직단과 장충단, 효창원을 훼손하여 사직단공원, 장충단공원, 효창원공원으로 공원화하였다. 1909년에서 1912년까지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을 지어 궁을 유원지형 공원으로 바꾼 것이 공간개조를 통한 공원화의 대



〈그림 2〉 파고다공원(1930년대)
(자료: 日本地理風俗大系, 권 17, p. 154.)

표적 사례이다. 일제 식민지시기에 밤벚꽃놀이는 가장 대표적인 행락문화 중 하나였다.⁷⁾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창경원의 밤벚꽃놀이는 한동안 서울의 대표적인 명물이자 공원문화였다.

해방 후 1973년 공원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조성의 제도적 틀이 자리 잡게 되었고, 1970년대 어린이공원, 서소문공원 등 새로운 도시공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을 맞이하여 아시아공원과 올림픽공원 등이 만들어졌다.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도시의 삶의 여건개선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생태공원, 문화공원, 소공원 등 다양한 유형의 공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는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매립지, 공장부지, 정수장 등 다양한 용도의 부지가 공원으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것이 선유도공원과 월드컵공원으로 이들은 서울의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 이후 공원이용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방식의 공원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의 늘어나면서 산책 및 조깅 등으로 공원을 활용하고 있고, 사진 동호회 등의 모임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가활동으로서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서구의 경우와 같이 공원문화가 일상적이고 친숙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⁸⁾ 혹자는 우리에게 공원문화가 일상적이지 않은 이유를 생활 속에서 여유가 부재한 현실과 느낌의 시간이 익숙하지 않은 생활습관에서 찾기도 한다.⁹⁾

7) “창경원에서 밤벚꽃놀이가 본격화되면 경성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창경원으로 몰려든다. … (중략) … 창경원의 밤벚꽃놀이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이곳으로 달려온다. 그들의 관심으로 꽃이 아닌, 꽃을 보러 온 사람이다. … (중략) … 근대공원 창경원은 밤벚꽃놀이라는 새로운 도시문화 상품을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던 것이다.” 신명직(2003),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pp. 45-46.

8) 필자의 기억 속에서도 공원문화는 친숙한 것은 아니었다. 이전에 쓴 공원에 대한 단상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토박이인 나 자신의 공원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어린이 대공원 정도가 떠오른다. 가족과 함께 놀러 갔던 그 공원에 대해 떠오르는 것은 넓은 잔디밭과 연못 등이며 솜사탕의 추억과 함께 어린 시절의 기억의 편린으로 강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시내 중심부에 있던 고등학교를 다니던 나에게는 어느 때인가 종로를 거닐다 몇 백 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던 공원의 기억이 있다. 탑골공원이었다. 주로 노인들이 소일하러 나와 있었고, 독립운동가의 동상을 구경하는 것을 빼놓고는 딱히 할 일이 없어 오래 지체하지 않고 나왔던 기억이 난다. 고등학생인 당시의 나에게 장충단공원, 사직공원 등의 공원은 뭔가 음습한 장소, 담배를 피울 수도 있는 일탈의 장소로 여겨졌다. 이러한 공원들은 열린 장소임에도 밀실의 공간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는 삼청공원의 추억으로 이어진다. 번잡한 도심에서 자연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는 몇 안 되는 피난처였고, 긴 산책로는 걷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으며,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대학생에게는 팬츠는 테이트 장소였다. 이러한 몇 가지 단편이 내 기억 속의 공원의 이미지들이다. 새소리가 들리고 푸르름을 접할 수 있는 공원에서의 일상사는 그리 익숙한 것이 아니었다.” 조경진(1995), “미완의 용산가족공원,” 『웃을 갈아입는 아파트』(주)열린세상, pp. 8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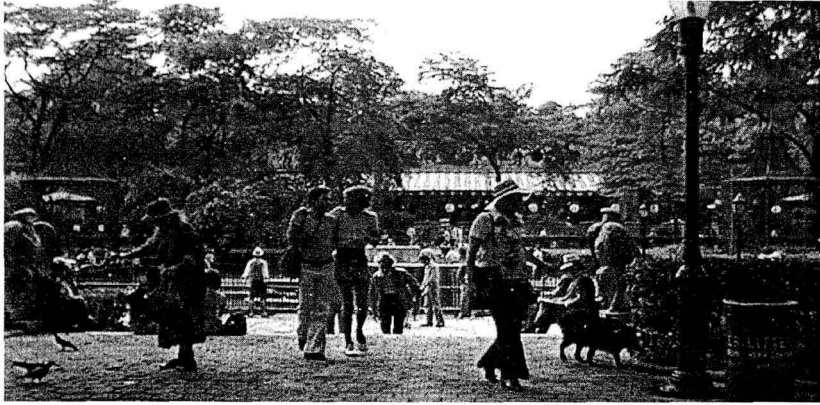
9) 한 블로그 컬럼의 기사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교 캠퍼스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잤

공원문화가 서구에서 유입된 것이라면 이러한 낯설음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여가 문화는 도시에 인접한 산을 오르고 계곡을 찾는 것이었다. 1886년부터 1892년까지 한국에서 머물며 영어 학교를 개설한 헐버트(H. B. Hulbert)는 우리의 여가문화를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공원, 장식된 공공장소 혹은 레크리에이션 장소의 개념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경치가 좋아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산록을 거니는 것을 즐긴다.”(Hulbert, 1896, 강신용, 1995: 6에서 재인용) 헐버트와 함께 영어학교 교사를 지낸 길모어(G. W. Gilmore)도 한국인의 산에 대한 애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조선 사람들은 지나치게 언덕을 좋아한다. 그 결과 남산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휴양지가 되었다. 북한산은 궁터에 속해 있으므로 백성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중 화창한 날에는 작은 무리들이 산을 넘어 거닐거나 나무 아래 누워서, 때로는 도시의 벽에 기대앉아 남쪽의 강의 경치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 (중략) … 남산은 울창한 나무로 된 훌륭한 휴양지이지만, 그곳이 유일한 곳만은 아니다. 서울에 이웃해 있는 모든 언덕에는 잘 닦인 길이 있고 늘 남자와 소년들이 홀로, 짝을 지어 또는 무리 지어서 산책하거나 바위에서 쉬면서 즐겁고도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G. W. 길모어, 1999: 134) 도시 근교의 산과 계곡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내려온 생활 전통 때문이며 자연환경과 밀접한 환경적 조건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는 새로운 도시공원이 생겨나고, 동네의 근린공원들이 갖추어지면서 공원을 찾고 즐기는 것도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관악산, 북한산, 대모산 등 도시 근교 산에서 동네 산에 이르기까지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소일하는 문화는 여전히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의 공원문화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자연을 즐기는 여가 생활문화와 새롭게 등장한 공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III. 공원문화, 비교와 차이

서구의 공원문화는 우리보다 더 오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기에 보다 생활에 밀착된 경향을 지닌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도시 생활에서 일상 공간으로서의 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영화라는 앵글로 조망했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디 알렌(Woody Allen)의 ‘맨해튼(Manhattan) (1979)’은 뉴욕커의 일상을 다룬 영화이다. 영화 속의 장면들에는 뉴욕이라는 도시의 장소성을 잘 드러내는 도시풍경과 구석구석

던 기억은 있어도 막상 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기억은 별로 없다. 심지어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인스턴트 음식과 인스턴트 식 데이트에 길들여져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뿌듯하고 당연하게만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 공원은 학창 시절 사생대회나 소풍으로 갔던 것이 전부이다.” 김경은, “서울에서 공원 즐기기” <http://tong.nate.com> 2007년 5월 20일 기사.



〈그림 3〉 Woody Allen 감독, ‘애니 홀(Annie Hall)’(1977)

의 생활공간이 잘 포착되어 있다. 센트럴파크도 자주 등장한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기도 하고, 호수에서 보트를 타며 한적한 오후를 보내기도 하며, 마차를 타고 낭만적인 밤나들이를 하는 곳이 바로 센트럴파크이다. ‘애니 홀(Annie Hall)(1977)’, ‘한나와 자매들(Hannah and Her Sisters)(1986)’, ‘애니팅 엘스(Anything Else)(2003)’에 이르기까지 우디 알렌의 영화들에서 센트럴파크는 도시의 일상과 다채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생활의 무대로 등장한다. 이밖에 뉴욕을 배경으로 한 대부분의 영화들에서 센트럴파크는 일상적인 공간이자 필수적인 풍경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 영화에서 공원이 일상 공간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재은 감독의 ‘태풍태양(2005)’에서는 주인공들이 일산 호수공원, 올림픽 공원 등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이라 하기에는 어렵다. 일부 그룹이 공원의 특정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2004)’에 등장하는 선유도 공원은 폭력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로 비춰진다. 역시 정상적인 공원 이용이라기보다는 일탈적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그나마 자주 등장하는 공원은 한강 고수부지로 ‘괴물(2006)’, ‘후아유(2002)’ 등 여러 영화에서 배경으로 등장한다. 한국영화에서는 공원보다는 공터나 뒷산, 천변 등의 자연적인 공간이 보다 자주 배경이 되곤 한다. 정윤철 감독의 ‘좋지 아니한가(2007)’에서는 전주와 전주천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면서 영화의 클라이맥스 부분에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로 그려진다.

영화가 일정 부분 현실을 반영한다면 한국 영화에서 공원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공원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까닭일 수 있다. 센트럴파크가 있는 뉴욕은 거주지, 일터, 공원 등이 근거리에서 모여 있는 반면, 서울의 공원은 집과 가까이 있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비단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공원과 일상 사이의 심리적 거리도 더 멀게 느껴진다. 공원보다는 집 앞 공터, 뒷산, 천변이 더 가깝고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여가문화의 한 특징일 수 있다. 이는 도시공원이 서구의 경우보다



〈그림 4〉 정재은 감독, '태풍태양'(2005)

일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구의 공원보다 우리의 공원이 일상 속에 밀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이 그저 편한 곳, 아무 것도 안 해도 되는 장소, 느림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공원에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볼거리와 할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공원이 일상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 존재하게 된다는 조심스러운 추론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¹⁰⁾ 이러한 공원에 대한 인식과 이용 방식 차이는 서구의 공원과는 다른 우리만의 공원디자인을 낳게 한다.

공원문화란 주변 환경이 처한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이른 아침에 기체조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독특한 공원문화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공원에서는 이동식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한가로이 사람들을 보게 된다.¹¹⁾ 유럽이나 미국의 공원에서는 날씨 좋은 날 잔디밭에서 햇볕을 쬌는 것이 또한 공원문화의 특징이다. 우리나라 공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평상은 우리의 좌식 문화 전통이 변용된 우리만의 공원문화이다.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 발상을 위해서는 환경적 조건과 문화적 차이를 면밀히 이해하는 것인 필요하다. 서구식 공원이용 장면(scene)이 연출되지 않는 것은 생활문화의

10) 논증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서구인과 한국인의 공원이용의 문화적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는 공원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의식이 강하고 그것도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빨리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더라도 빨리 걷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시간을 보내는 데에 익숙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우리의 공원이 많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테마 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공원문화행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11) 녹색으로 칠해진 이동식 철제 의자를 파리식 공원문화를 대표하는 매체이자 상징이다. 1950년대부터 룩셈부르크 공원에 놓여진 이 의자는 공원에 아무 곳이나에 자유롭게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하거나 휴식하는 용도로 이용된다. 이동식 의자는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도 개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매체로서 적합하다. 1990년대 뉴욕의 브라이언트 공원(Bryant Park)을 개조하면서 이동식 의자를 공원디자인에 도입하였다. 뉴욕의 공원에 이동식 의자를 매개로 하여 파리의 공원문화를 도입한 것이다.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기후적인 차이와 생태적인 소재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이 드물기 때문에 햇볕이 좋은 날이면 공원의 잔디밭에 나와 선텐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굳이 날씨가 좋은 날 선텐을 해야 할 만큼 빛이 부족하지는 않다. 또한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 햇볕을 쬐며 잔디밭에 있기는 힘들다. 오히려 그늘에서 서늘한 바람을 쏘이고 싶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공원의 이용자들이 늘 그늘이 적다고 불평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공원에서 연출되는 풍경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방식은 서구 공원의 잣대에 비추어 본다면 큰 차이가 있다.

IV. 서구 공원문화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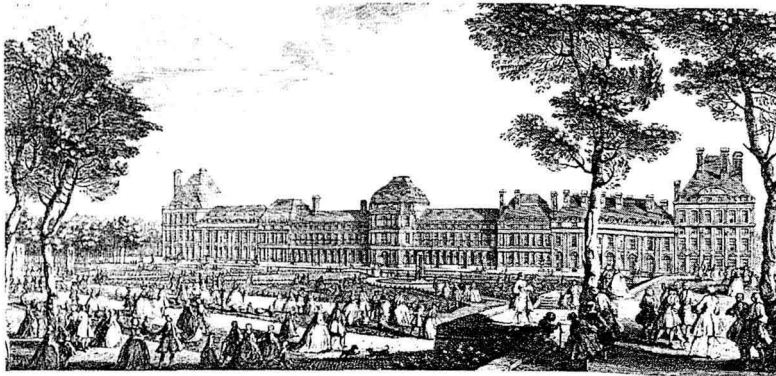
공원(park)이라는 말은 군주와 귀족들이 수렵을 하기 위해 동물들은 가두어 놓았던 구획된 땅을 의미하는 말이었다(Neckar, 1989: 4). 사냥터로 존재했던 숲이 오늘날 공원의 원조이다. 근대적인 의미의 공원은 17세기 중엽이후 왕실 정원이거나 사냥터를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시작되었다. 런던의 하이드 파크(Hyde Park), 파리의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 빈의 프라터 숲(Prater Park), 베를린의 티어가르텐(Tiergarten)이 대표적 예이다. 초기의 공원은 사냥이나 스포츠의 여가 장소로 이용되었다.

19세기 초반 튀를리 정원(Tuileries garden)이나 룩셈부르크 정원(Luxembourg garden)이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기는 했지만 상류계층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룩셈부르크 정원이 주로 학자나 학생, 지역 주민들이 산책하는 장소였던 반면, 튀를리 정원은 부르주아지 사회의 구성원들이 첨단 유행을 쫓는 만남의 장소였다(Conan, 1991).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는 젊은 남녀들은 한껏 잘차려 입고 튀를리 정원을 거닐곤 했다. 살롱처럼 남녀가 자연스럽게 애기를 거는 것이 허락되는 장소였다. 튀를리 정원은 조용하지만 사랑의 전쟁을 벌여지는 곳이기도 했다(Conan, 1989). 왕실 정원이 개방되어 공공 정원(public garden)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지만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종의 코드가 존재했다. 왕실보다는 다소 느슨하지만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갖추어야 했다. 당시의 파리 공원은 완전한 자유가 존재하는 공간이라기보다 눈에 안 보이는 질서와 규율이 배태된 장소였다.¹²⁾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런던, 리버풀, 파리 등 유럽의 도시들이 공원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면서 공원이용도 활성화되기 시작한다.¹³⁾ 공원에서 걷는 것이 당대에 보편적인 공원문화로 자리 잡게

12) 19세기 초반 파리의 룩셈부르크나 튀를리 정원에서는 공원문화는 보다 귀족적 문화에 가까웠다. 옷을 잘 차려입고 걸으면서 점잖고 예의 바른 방식으로 이용했다. 반면 티볼리(Tivoli)나 뷰종(Beaujon)과 같은 상업적인 정원은 보다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떠돌며 놀고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하고 춤도 추는 보다 활력 있게 활용되었다. Nicholas Green(1999), *The Spectacle of Nature: Landscape and Bourgeois Culture in Nineteenth-Century Fra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 72-73.

13) 계획공원의 시초는 1811년부터 1826년에 조성된 런던의 리젠트 파크(Regent's Park)이다. 토지매입부터



〈그림 5〉 뒤풀리 정원에서의 파티

(자료: Michel Conan and Isabelle Marghieri (1989), "A Walk in the Tuileries and Other Tales of Love" *Landscape*, 30(2), p. 3.)

되었다. 걷는 것은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정신적인 건강에도 기여한다고 간주되었다 (Rybczynski, 1991: 105). 공원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꽃과 나무를 감상하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육체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고양되기를 바랐다. 공원에서 활동은 주로 건전한 것이었다. 공원에서는 가능한 정치적, 종교적 활동이 허락되지 않았다. 1886년 버킨헤드에서는 공원에서 정치적 종교적 집회를 법으로 금지하였다. 군사 사열도 국가적 위기 등의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었다.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면 개인들의 편안한 휴식이 방해되었기 때문이다(Conway, 1991: 186-190). 당시 공원이 지향하는 바는 도시적 가치보다 평화로운 전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개인이나 가족, 소규모 그룹의 자유로운 휴식과 운동이 주요 이용방식이었다. 도시 내의 평화로운 안식처로서 공원의 기능이 우선시 되었지만 골프,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과 스포츠 등은 허용되었다. 19세기 말이 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활동이 공원에 도입되었다. 1898년 배터시 공원(Battersea Park)에서는 크리켓, 축구, 테니스, 말타기, 볼링, 고리던지기, 자전거타기 등의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중 자전거 타기는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Conway, 1991: 193-194). 19세기 영국의 공원에서 공공적 질서를 해치는 상행위, 사냥, 옷을 빨고 말리는 행위, 음주와 춤 등은 금지되었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공원 관리자나 경찰이 순찰하면서 관리하였다. 공원에는 걸음로는 자유로운 장소처럼 보이나 엄격히 금지되는 것과 허용되는 것의 경계가 있었다.

조성까지 공공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원은 리버풀의 버킨헤드 파크(Birkenhead Park)는 1847년 문을 열었다. 파리에서는 나폴레옹 3세가 집권 아래 오스망 남작인 주도 아래 도시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1860년부터 1870년대 이르기까지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을 공원으로 개조한 후 뱅센느 숲(Bois de Vincennes), 몽소공원(Parc Monceau), 뒁상부르크 공원(Luxembourg Garden) 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고, 이후 뫼트 쇼몽 공원(Parc des Buttes-Chaumont)과 몽수리 공원(Parc Montsouris)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조경진, 2006, "공원, 생명과 소통의 도시문화를 위한 터전," 『Park_scape: 한국의 공원』, 환경과 조경, p. 11.



〈그림 6〉 Summer Day in Hyde Park. Oil painting by J. Ritchie, 1868

(자료: Hazel Conway (1991), *People's Park*, p.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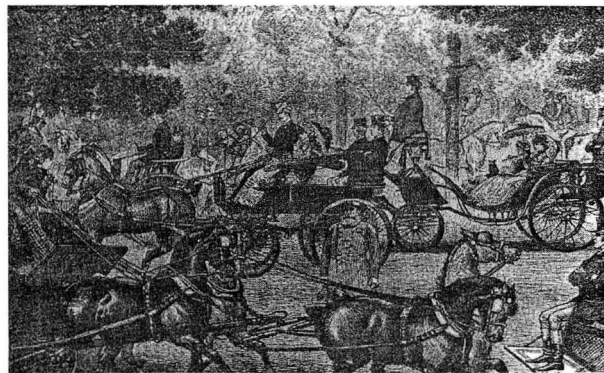
19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는 이후 150여 년 동안 공원문화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원이용방식을 펼쳐보였다.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는 전원적인 풍경의 녹지가 도시민에게 마음의 평정과 고요함을 느끼게 하여 심성을 순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시민들이 음주벽, 춤과 도박 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인격을 교화해야하는 역할을 공원이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건전한 가족의 여가활동을 촉진시켜 가족문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공원조성의 의도였다. 공원은 사회통합의 장이기도 했다. 옴스테드는 공원을 통하여 상류계층과 하류계층이 함께 어울리기를 희망했고 자연을 향유할 기회가 충분히 공유되기를 바랐다. 그는 민주사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원에 가고 댄싱스쿨이나 음악회에 참여하고 친목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민 스스로가 이러한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히 민주사회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민주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백 마디 설명보다 유용하다고 생각했다(Gopnik, 1997).

센트럴파크가 개장한 후 옴스테드가 바라던 공원의 이념이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다. 진정한 계층혼합이 이루어지기에는 초기의 센트럴파크의 이용방식이 중산층 계층의 생활양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세련된 공원경관은 중산층의 취향과 이용패턴에 부합되는 것이었기에 노동계층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공원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계층이 선호한 스포츠나 레크레이션은 단순노동의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술을 많이 먹거나 힘을 자랑하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열광적으로 노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방식은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배제되었다(Low, Taplin and Scheld 2005: 22-23).

센트럴파크 공사가 시작되면서 마차로 공원을 둘러보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다. 공원 산책은 상류계층 남녀들이 잘 차려입고 마차에 앉아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의상과 마차를 과시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차를 소유할 만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상위 5%계층인 것을 감안해보면 센트럴파크가 상류계층에 의해 어느 정도 독점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당시 공원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859년 센트럴파크에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신문지상에서는 스케이트장이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즐기는 미국적 민주주의의 산 증거라 칭송하였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즐겼다. 1867년 공원 외부에 보다 고급스러운 사설 스케이트장이 생긴 후에는 노동자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하였다(Rosenzweig and Blackmar, 1992: 211-232).

그러나 개장 초반에는 노동자 계층에게는 센트럴파크는 기차를 타고 오는 교통비도 들 뿐만 아니라, 와서도 별로 즐길 거리가 없는 장소였다. 센트럴 파크가 계층혼합이 이루어지는 낙원이 되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었다. 존 카슨(John Kasson)은 센트럴 파크의 공원문화를 다



〈그림 7〉 센트럴파크에서 마차 타는 모습

(자료: Roy Rosenzweig and Elizabeth Blackmar(1992), *The Park and The People*, p. 219)



〈그림 8〉 센트럴파크의 스케이트장(1860년대)

(자료: Roy Rosenzweig and Elizabeth Blackmar(1992), *The Park and the People*, p. 231)



〈그림 9〉 센트럴파크에서 산책하는 사람(1860년대)

(자료: Roy Rosenzweig and Elizabeth Blackmar(1992), *The Park and the People*, p. 240)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뉴욕의 문화적 리더들은 공공의 질서를 위협 받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계층인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도시가 안전하기를 바랐다. 공원이 이들을 신사적이고 효과적으로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였다. 기본적으로 노동자 계층은 시골 벽적이고 재미있고 거친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점잖은 센트럴파크의 분위기는 이들을 갑갑하게 하고 숨 막히게 하였다. 이들은 센트럴파크에 싫증을 내고 뉴욕 인근의 존 우드(John Wood) 숲이나 1890년대 말 문을 연 코니 아일랜드(Coney Island)에서 여가를 즐겼다(Kasson, 1978: 3-53).

1850~60년대 센트럴파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공원에서 개인의 휴식을 중시하여 그룹 활동도 정해진 규약에 따라 통제하였다.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공원이용방식이 보다 대중화되었다. 회전목마시설도 들어서게 되었고, 공원에서 활쏘기, 풋볼, 테니스,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허용되었다.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에만 벌어지는 밴드 콘서트가 일요일 내내 열리게 되었다. 많은 노동자계층의 가족들에게 매주 일요일 열리는 센트럴파크 밴드 콘서트는 일주일 간의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위안처였다. 이후 센트럴파크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일반 대중들의 볼거리가 늘어났다. 1871년 동물원이 들어섰고, 1877년에는 자연사박물관, 1902년에는 메트로폴리탄 아트 뮤지엄(Metropolitan Museum of Art)이 공원의 외곽에 자리 잡게 되었다. 20세기 초반에는 공원 주변에 이민자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계층들이 공원을 이용하게 되었다. 당시의 진보적인 개혁가들도 보다 많은 노동자계층이 공원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양한 방식의 공원이용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1927년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많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이용되었다. 1930년대에는 뉴욕시 공원커미셔너였던 로버트 모세스(Robert Moses)는 공원 외곽에 20여 곳의 놀이터를 설치하였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모세스는 센트럴 파크가 보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가 뉴욕시의 행정을 총괄하면서 1960년대까지 공원에 스케이트장, 수영장, 야구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다(Rosenzweig and Blackmar, 1992: 211-463).



〈그림 10〉 코니아일랜드(1913년)
(자료: John Kasson(1988), *Amusing the Million*, p.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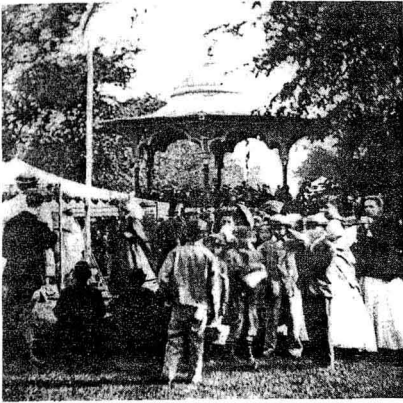
1970년대에는 시의 재정 위기로 공원관리예산이 삭감되면서 센트럴파크는 더 이상 낙원이 아닌 장소로 변모하게 되었다. 안전하지 못한 도시 여건, 우범화되고 낙후되는 시설 등이 공원을 위협하는 요소들이었다. 이에 대응하고자 1980년 센트럴파크 컨서번시(Central Park Conservancy)가 설립되었다. 컨서번시에서는 기업과 시민들에게서 기금을 모아 센트럴파크를 복원하고 관리 운영하는 일을 민간재단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 손상된 공원을 컨서번시에서는 옴스테드가 설계한 초기 공원의 원 모습을 복원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에는 공원관리예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센트럴파크는 150여 년 동안 뉴욕시 대표적인 공공 공간으로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초기의 센트럴파크는 옴스테드의 공원 이념에 부응하여 주로 수동적으로 이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활동적 공원이용의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원이용 문화가 등장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센트럴 파크의 공원문화는 변모하여 왔다. 센트럴파크의 경우는 미국의 공원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공원문화의 변화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¹⁴⁾

V. 공원문화, 갈등과 극복: 서울숲을 사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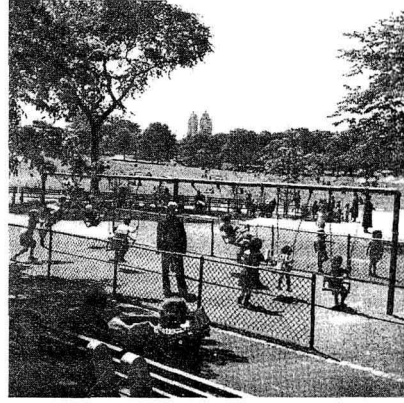
우리나라 공원이용의 문제와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특정 공원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서울숲을 사례로 공원이용의 다양한 모습과 거기에서 생겨나는 갈등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서울숲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

14) 갈렌 그란츠(Galen Granz)는 미국 공원조성과 이용은 여러 계층과 이해 집단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공원문화를 유원지 시기(pleasure ground: 1850~1900), 개량 공원 시기(reform park: 1900~1930), 레크리에이션 시기(recreation facility: 1930~1965), 오픈 스페이스 체계 시기(open space system: 1965~?), 지속가능한 공원 시기(sustainable park: 1990~현재)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Granz, 1989, Granz and Boland, 2004: 102-120). 그란츠의 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입각하여 공원의 변화단계를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의 도시공원도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인다. 제1기인 ‘유원지 시기’는 센트럴파크가 대표적인 공원이다. 이 시기에는 전원적 공원의 이념에 부합되게 산책과 휴식 등 수동적인 활동과 테니스, 자전거타기, 폴로게임 등 소극적인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제2기는 ‘개량공원 시기’로 주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의 제공을 중요한 관심사였고, 어린이놀이터와 인근 주민과 밀착된 지역공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제3기는 ‘레크리에이션 시설 시기’로서 모든 계층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는 레크리에이션의 제공을 공원계획과 운영이 목표로 삼았다. 공원에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확보되었다. 제4기는 ‘오픈스페이스 체계 시기’로서 자투리 땅이나 가로, 광장 다양한 유형의 오픈 스페이스를 공원화하였고 이를 연계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제5기는 ‘지속가능한 공원 시기’로서 생태적 공원의 이념이 강조되면서 공원도 자족성을 가지면 적은 비용으로 유지 관리되는 것이 중시된다. 공원이용에의 참여와 생태교육 등의 이용방식도 중시된다.



〈그림 11〉 센트럴파크의 일요일 밴드콘서트
(1880년대)

(자료: Roy Rosenzweig and Elizabeth Blackmar
(1992), *The Park and The People*, p. 311)



〈그림 12〉 센트럴파크의 놀이터(1930년대)

(자료: Roy Rosenzweig and Elizabeth Blackmar
(1992), *The Park and The People*, p. 452)

동에 위치한 면적 1,156,498m²의 도시공원이다. 2003년 1월에 조성방침이 수립되어 현상공모, 설계 및 시공의 과정을 거쳐 2005년 6월 개원하였다. 조성단계에서부터 민관 파트너십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가 기금을 모아 일정 부분의 공원조성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이후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서울숲 사랑모임’을 설립하여 공원 개원에서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관리하고 있다. 2005년 개원 이후 2년여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숲은 공원문화의 갈등과 해결, 공원문화 기획과 구현의 성공사례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2005년 6월 서울숲이 문을 열었을 당시 많은 혼란을 겪었다. 수많은 관람객으로 넘쳐났고 공원에서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이용 행태가 일어났다. 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면서 배설물이 방기되었다. 공원을 관리하던 서울시와 서울 숲 사랑모임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는 몇 가지 조건과 수칙을 홍보하느라 한동안 진땀을 뻘뻘했다. 공원에서 술을 먹는 행위를 계도하느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¹⁵⁾ 이외에도 공원 내 나무에 줄을 걸고 물에 젖은 옷을 말리는 행위가 눈살을

15)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인 이강오는 개장 초의 공원운영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개장초 어려움을 예측하였지만 문제는 훨씬 심각하였고, 언론은 연일 운영방식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서울시는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안정을 위해 시민사회, 기업,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을 결의한다. 서울숲 사랑모임은 기존 자원 활동가에 100명의 대학생 청년활동가를 모집하여 방문객 안내 및 공원질서유지를 역할분담에 추가하게 된다. … (중략) … 3개월간 주야간을 막론하고 쓰레기 투기, 불법주차, 음식배달 그리고 음주와의 전쟁이 계속되었다. 특히, 공원문화를 치명적으로 악화시키는 과도한 음주문화와의 싸움이 가장 힘겨운 일이었다.” 이강오(2006), “서울숲 시민참여 과정과 주요 성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문화』, 서울그린트러스트, pp. 16-17.



〈그림 13〉 서울숲 전경(사진: 이양희)



〈그림 14〉 서울숲 분수대(사진: 이양희)



〈그림 15〉 책 읽는 공원 캠페인(사진: 서울숲 사랑모임)

찌푸리게 했고, 이곳저곳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한동안은 공원에서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서울시관계자는 “심지어는 공원주변 배달 전문 음식점 167곳에 모두 공문을 보내 공원 내에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 위생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경 이었다”고 한다(이주현, 2006: 17). 계도와 통제로 얼마 후 서울숲은 안정을 찾게 되었다. 유원지처럼 방문하던 공원이용행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 잡게 되었고 일상적인 우리 동네의 공원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게 되었다.

2006년부터는 포지티브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책읽는 공원 캠페인, 생태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계층과 주체를 아우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원봉사의 분야도 방문자안내, 생태해설, 공원가꾸기, 사진기록, 도서관사서 등 다양하게 확대되었다(이강오, 2006: 17-18, 이근향, 2006: 39-81).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공원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책읽는 공원’ 운동이다. 운동의 일환으로 숲속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이동도서관인 ‘책 수레’를 도입하였으며 매월 책 버룩시장을 열었다. ‘책읽는 공원’ 운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

두면서 새로운 공원문화를 창출해 내었다. 바람직한 공원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못한 이용 행태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원이용문화를 기획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이다.

지난 2년 여 간 공원의 관리운영을 담당한 ‘서울숲 사랑모임’도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고, 시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공원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숲 공원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하여 공원을 만들고 운영한다는 점에 있다. 기업 회원, 대학생, 청소년들이 청소년 안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서울숲을 사회봉사의 터전으로 삼고 있고, 방문자 안내서비스, 공원 가꾸기, 서울숲 이용홍보 등의 다양한 업무를 위해 전문적인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공원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공원문화도 중요하지만, 자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활동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가치 있는 공원문화일 것이다.¹⁶⁾

그러나 서울숲 사랑모임과 서울시와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점이 아직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공원운영에 있어서 행정편의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2006년 가을에 서울시는 문화적인 공원을 만들자는 의도로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15점을 잔디광장에 전시해 놓았는데 조각품의 성격이 장소적 맥락에는 맞지 않아 자연히 대중과 소통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렇듯 관주도의 공원운영방식의 관행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한 공원운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곤 한다. 민관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일정 부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아직은 기업과 시민들의 기금을 모으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서울숲 사랑모임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서울숲은 우리 공원문화의 현실적 문제와 미래의 바람직한 공원문화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모델이다.

IV. 마치며: 우리의 공원문화, 이슈와 과제

앞서 서구의 공원과 우리 공원의 다양한 이용방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공원과 공원문화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공원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특성과 조건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무엇을 하기를 강요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옴스테드는 공원은 우리에게 확장된 자유의 감각(a sense of enlarged freedom)을 제공한다고 말했다(Garvin, 2005). 공원은 신선한 공기로 도시를 숨쉬게 하기도 하고, 자유의 감각으로 도시민을 숨쉬게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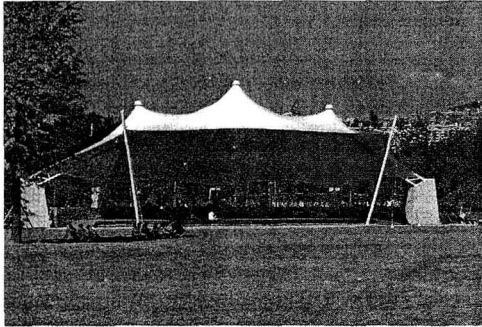
16) “공원은 단순한 관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곳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에 호흡이 생동하는 마당이다.” 김찬호(2007), 『문화의 발견』, 문학과 지성사, pp. 283-284. 공원의 중요한 가치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교라는 데 있다. 공원을 통하여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공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일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될 때 공원의 가치는 배가된다.

다. 그러나 자유의 감각이라는 말의 뜻은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유의 감각이란 도시 내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곳이라 해석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군중 속에 함께 있되 개인이 구속받거나 방해받지 않은 상태로 이해될 수도 있다. 개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행동 규약이 필요하다. 공원을 이용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것도 일정한 사회적 규약을 따르는 것을 학습하는 것과 유사하다. 마치 음악회를 관람하는 태도를 배우거나 테이블매너를 배우는 식의 과정이 요구된다. 서구의 공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바에는 이러한 좋은 매너의 교육과 전파가 담겨있었다. 공원의 가치는 여러 계층이 어울리는 민주적인 장소라는 점이었다. 거기에는 중상류 계층의 취향과 행동양식을 모든 계층에게 전파시키고자 한 의도도 있었다. 바람직한 공원문화의 구현과 확산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공적인 영역에서 행동하는 수준을 상향평준화 키고자 한 것이다(Cranz, 1989: 183).

물론 19세기 중반과는 시대적 상황이 다르며 계층간의 엄격한 구분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공원을 시민들을 훈육하는 장소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기에, 공원을 이용하는 방식에도 합의된 규약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설정되어 있는 공원문화에 대한 규제 사항들에 대한 비판적 점검도 아울러 요구된다. 과연 정해진 규약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인가? 혹은 설정된 공원이용방식이 특정한 계층의 가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지나치게 서구적인 잣대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즉 공원에서의 금기된 활동이 온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공원 이용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곤 한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라, 물에 들어가지 마라,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지 마라, 공놀이 하지 마라 등이 그러한 예이다.

서구의 공원문화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문화이다. 함께 있되 개인의 자유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개인중심 또는 가족중심의 문화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개인이나 가족보다 모임이나 단체가 중시되는 성향이 있다. 자연히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드는 일상적 여가행위가 보다 빈번하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이 현재의 공원에서는 규제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¹⁷⁾ 공원이 라는 것도 고유한 지역적 문화의 산물이기에 어느 정도 자생적인 생활 문화를 수용하여야 한다. 공원이 담아내는 좋은 가치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고유한 생활문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는가

17) 우리고유의 생활문화를 공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곤 한다. 일부 조정설계가 삼겹살을 구워먹을 수 있는 공원도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도 밖에서 모여앉아서 고기를 구워먹는 것에 대한 수요 혹은 욕구가 많지 않은가? 만약 공원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욕구를 욕외에서 포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왜 서울숲, 올림픽공원, 하늘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서울에 존재하는 대형공원에서 이러한 진솔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정옥주(2007년 2월). “스케이프 시나리오”, 『환경과 조경』, p. 130.



〈그림 16〉 서울숲의 잔디광장



〈그림 17〉 서울숲의 물놀이터

에 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공원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의 문제는 공원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우리의 고유한 생활문화를 수용한 공원디자인의 단편은 공원에 놓여 있는 평상이다. 우리나라 공원에만 존재하는 정자나 평상에서 사람들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 다시 서울숲을 사례로 우리의 공원이 한국인의 이용행태를 수용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가를 반성해보면 결과는 부정적이다. 넓은 잔디밭은 항상 텅 비어 있다. 외국의 공원의 잔디밭은 선택하고 피크닉 하는 장소이지만 우리의 공원의 잔디밭은 같은 용도로 이용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이용하기 편한 장소는 어디인가? 『서울숲 문화행태 평가 모니터링(2007)』에 따르면 서울숲에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분수대, 물가 및 그늘 등이었다. 물가나 그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공간을 축약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놓은 이벤트 마당 등은 이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위의 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개선사항도 운동 및 놀이 시설의 확충을 꼽았다. 산책과 걷기를 강요하는 수동적인 공간디자인과 보다 활동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한국적 여가문화에 적합한 공원은 어쩌면 소박하고 평범한 공간일 런지도 모른다. 서울숲의 경우에도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공간이용행태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리모델링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원문화라는 관점에서 서구와 우리나라의 공원의 변화를 추적하였고, 공원의 의미를 점검하여 보았다. 공원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시민이 공유해나가는 제도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공원문화는 당시의 사회적 가치와 지향하는 바를 반영하여 왔다. 시대에 따라 공원의 이용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공원은 자유롭게 열린 공공의 공간이지만 모든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공원이용방식에는 그 사회가 합의한 코드가 있어 이를 따르는 것도 요구된다. 물론 공원 이용의 갈등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것도 공공적인 공간이용을 통하여 공공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공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운영하는가는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공원문화를 들여다

보면 동시대의 정치, 사회문화의 갈등과 문제가 담겨져 있다. 거기에서는 가치의 충돌과 조정,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와 수용이 진행된다. 우리의 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방식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공원이 보다 일상과 가깝게 되기 위해서,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공원문화를 찾아내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원을 만들고 이용하는 방식의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신용(1995), 『한국근대 도시 공원사』, 도서출판 조경.
- 김경은, “서울에서 공원 즐기기” <http://tong.nate.com> 2007년 5월 20일 기사.
- 김찬호(2007), 『문화의 발견』, 문학과 지성사.
- 문화의 창 총서 편집위원회(2006) 『만국공원의 기억』, 인천문화재단.
- 이강오(2006), “서울숲 시민참여 과정과 주요 성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문화』, 서울그린트러스트, pp. 9-29.
- 이어령(2005), “서울 속의 용산, 용산의 미래: 모성의 텅 빈 창조 공간으로”, 『용산의 과거와 미래 심포지움 발표집』.
- 서울그린트러스트(2007), 『서울숲 문화행태 평가 모니터링』, 서울그린트러스트.
- 서효정(1996), “도시공원과 공원문화”, 『서울시정연포럼』 제33호 pp. 24-28.
- 신병직(2003),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 유길준 지음, 허경진 옮김(2004), 『서유견문, 조선 지식인 유길준, 서양을 번역하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 이근향(2006), “서울숲의 민관협동 운영시스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문화』, 서울그린트러스트, pp. 39-81.
- 이주현(2006), “녹색 공원은 평등한가”, 『봄, 조경 사회 디자인』, 도서출판 조경, pp. 10-22.
- 정옥주(2007), “스케이프 시나리오”, 『환경과 조경』 226호, pp. 128-133.
- 조경진(1995), “미완의 용산가족공원” 『옷을 갈아입는 아파트』, 도서출판 열린 세상.
- 조경진(2003),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의 도시공원관에 대한 재해석”, 『한국조경학회지』 통권 95호, pp. 25-37.
- 조경진(2006), “공원, 생명과 소통의 도시문화를 위한 터전” 『Park_Scape: 한국의 공원』, 환경과 조경.
- 황기원(2001), “서울 20세기 공원·녹지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 379-447.
- Conan, Michel and Isabelle Marghieri(1989), “A Walk in the Tuileries and Other Tales of Love,”

- Landscape*, 30(2), pp. 1-8.
- Conan, Michel and Isabelle Marghier(1991), "Figures on the Grass: The Public Gardens of Paris," *Landscape*, 31(2). pp. 29-35.
- Conway, Hazel(1991), *People's Pa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nz, Galen(1989), *The Politics of Park Design*, Cambridge: The MIT Press.
- Granz, Galen and Michael Boland(2004), "Defining the Sustainable Park: A Fifth Model for Urban Parks," *Landscape Journal* 23(2), pp. 102-120.
- Garvin, Alexander(2005), "Foreword," *The Cultured Landscape*, ed. Sheila Harvey an Ken Fieldhouse, London: Routledge, pp. 7-8.
- Gilmore, G. W.(1892), *Korea from its Capital*, 신복룡 역, 『서울풍물지』(1999), 집문당.
- Gopnik, Adam(1997), "Olmsted's Trip" *New Yorker*, March 31.
- Green, Nicholas(1999), *The Spectacle of Nature: Landscape and Bourgeois Culture in Nineteenth-Century Fra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Kasson, John(1978), *Amusing the Million: Coney Island at the Turn of the Century*, New York: Hill and Wang.
- Low, Setha, Dana Taplin, and Suzanne Scheld(2005), *Rethinking Urban Parks: Public Space and Cultural Diversity*, Austin: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 Neckar, Lance(1989), "The Park: Prospect and Refuge," *Reflections*, No. 6, pp. 4-12.
- Olmsted, Frederick Law(1971), "Public Parks and Enlargement of Towns," *Civilizing American Cities: A Selection of Frederick Law Olmsted's Writings on City Landscape*, ed. S.B. Sutton, pp. 52-99.
- Ribczynski, Witold(1991), *Waiting for the Weekend*, New York: Penguin Books.
- Rosenzweig, Roy and Elizabeth Blackmar(1992), *The Park and the People: A History of Central Park*,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ansot, Pierre(2002), "A Contemplation of French Open Spaces," *Parks: Green Urban Spaces in European Cities, Edition Topos*, Muchen: Callway, Verlag, pp. 6-13.
- www.centralparknyc.org
- www.centralparkhistory.com